

기고-성도 약초재배단지를 가다

중국은 약용작물도 재배단지화 추세 적지선정으로 생산성증대, 판로개척등 잇점 많아

아침 일찍 항상 쓰는 택시를 타고 안국을 출발했다. 엇그제 까지만 해도 땅에 붙어있던 옥수수밭이 이제는 사람 키보다도 훨씬 커서 긴 목을 쭉 빼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병정들이 들판에 가득한 것 같다.

들에 옥수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국 지방은 예로부터 약초재배지로도 유명하다. 얼핏 보아도 황기, 산약, 형개, 방풍, 백지, 단삼, 복사삼, 우슬 그밖에 많은 약초들이 들판에 가득하다.

창밖 풍경을 보며 이 생각저 생각 하다보니 벌써 북경 공항이다. 10시 45분 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성도. 이번 성도 여행 목적은 시호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약초재배 주산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황련, 당귀, 일당귀, 천궁, 두충 산지들을 두루

돌아보고 나름대로 상황분석도 해볼 작정이다.

우선 허허지 약초시장부터 들렀다. 잘 정돈된 안국시장은 과는 달리 이곳 주변환경은 비교적 지지분하다. 몇 군데 둘러 시호를 봤는데 놉두가 길고 건조는 70% 정도, 곰팡이가 있는 것도 있다. 창고 문을 열어보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곰팡이가 나지 말라고 유황을 피운 탓이다. 도저히 물건을 수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시호 구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날 성도 시내로 나섰다. 장날인지 길거리엔 온통 사람들이 북적된다. 어깨에 바구니를 아기 업듯이 둘러메고 가는 사람, 자전거에 바구니를 메달고 가는 사람, 어떤이들은 오토바이 양쪽에 바구니를 네 개씩 매달고 다닌다. 아마도 그 바구니

안에는 수확한 약초나 농작물을 담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구입한 가정용품 등을 담아가기도 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다.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나라 농촌의 가을 들녘을 보는 것 같다. 이곳은 벼 수확을 끝낸 후에 천궁을 심는단다. 묘종은 부근 높은 산에서 육묘해 심는데 12월이면 수확한다. 이모작을 하는 셈이다. 이곳 사람들이 천궁을 이모작으로 하다보니 전업이 아닌 부업인 셈이다. 그러니까 천궁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아무 말 안 하지.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야단법석을 떨텐데.

자투리 땅에서 연 수천톤 생산

급서 대주점에서 투숙객들에게 주는 아침식사는 흰죽, 나물종류 그리고 만두, 빵이다. 그런대로 아침식사는 충분하다.

당초 계획대로 7시30분에 출발하여 일천궁, 천궁묘, 황련을 보러 갔다. 팽조시에서 자동차로 30분을 달리니 산들이 보이고 '단경산입구'가 보인다. 이곳에서도 30분 정도를 더 가야 한다. 인민비 6원을 도로비용으로 내고 계속 달리는데 오른쪽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왼쪽 산 옆에는 촌락이 즐비하다.

'바이수이허'라는 곳에 도착해보니 이곳은 관광지였

속박업소 및 가게들이 있고 앞에 보이는 큰 산이 룡문산 이란다. 높이가 1,600~1,700m 되는 꽤 높은 산이다. 지리산 만큼이나 산이 높고 골짜기도 깊은 험한 산이다. 경사도가 45도 이상되는 산자락들에는 옥수수 그리고 약초 재배지들이 보인다. 비포장의 높은 경사를 따라 올라 가는데 왼쪽으로는 자그마한 호수가 보이고 군데군데 촌락이 있다. 이곳 성도에 오면서부터 줄곧 가이드 역할을 맡아온 거래처 양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40세 안팎 돼보이는 사람이 나와 약초재배지를 안내한다.

천궁 종묘밭, 일천궁 재배지, 황련 밭도 눈에 띈다. 산자락 밭이라 면적이 우리네 텃밭의 채소밭 수준이다. 이렇게 자투리 땅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1년의 총생산량이 수천톤에 이른다니 참으로 놀랍다. 황련을 세 사람이 한 짐씩 짊어지고 산동네를 내려왔다. 양씨가 그들과 함께 흥정을 하는데 건조가 덜되고 가루가 많으니까 감량을 해야된다는 양씨와 건조가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현지 사람과의 흥정이 요란스럽다.

오후엔 '백톤'이라는 곳에 가서 황련 밭을 구경했다. 60도 경사는 되어 보이는 곳에 텃밭 비슷한 넓이인데 이렇게 조금씩 재배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땅이 워낙 넓다보니 그런가 보다. 안내하는 아주머니 말

에 의하면 금년에 150톤 정도 생산될 예정이란다. 내년에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오고 내 후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시세가 15~16볼 정도 하는데 내 후년이면 반값이 되겠지.

천궁 7,8월 심어 12월에 수확

팽조에서 오는길, '신도'라는 곳에 도착했다. 마침 오늘이 장날인지 시장안에 천궁묘가 즐비하다. 이곳 사람들은 7~8월에 천궁을 심어서 12월에 생산한다. 5월 달에 한번 수확을 하는데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천궁 비슷한 "나이송"이고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오송"이다. 중국 사람들 이야기로는 "다오송"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색깔이 검고 기름기도 많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금년에는 천궁을 많이 심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가격이 많이 내려 가서 타산이 맞지 않는단다. 이곳 중국은 농산물의 재배가 단지화 되어 있다. 어떤 곳은 약초만 주로 재배하고 어느 지방은 마늘만 심는단다. 도시 근교는 채소 종류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린다.

성도시에는 인구가 많아서 주변에 채소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한다. 단지화 하는 이유는 어떤 품종이 그 지방의 토질에 맞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화 함으로서 정보의 교환, 판매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농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곡 농업이 아닌 상업농이라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런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 보호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 개방상태에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올때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처음 생각 같지 않다. 엇그제 둘러본 "인창구"라는 곳도 괜찮은 곳이라는 한데 "주자이구"나 "어메이산"은 아주 유명한 곳이다. 다음에 올 때는 꼭 가봐야지. 약재로는 천궁, 황련, 강황, 두충, 반하, 작약, 일당귀, 천마, 택사 등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약재와 비슷한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이종용 고문)

심 · 포 · 지 · 업

자원식물학회 학술발표회 낙동강변 자원식물탐사도

한국자원식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지뿌리 추출물의 성분분리와 뇌허혈 치료제 개발의 이해'를 주제로 박진서 박사(향토지적재산본부 조사발굴팀장)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이주경 박사(강원대 농촌개발연구소)는 '동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들깨 및 차조기의 유전적 분화'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학술발표회 둘째날인 27일은 안동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변 자원식물을 탐사하게 된다.

2002 공동심포지엄 개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작물연구 현황과 과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작물연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오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작물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 공동으로 개최될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공동심포지엄과 학회별 미니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 중 약용작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장일무 교수(서울대학교)의 '천연물산업의 동향과 약용식물활용', 백흥영 소장(정우약품부설연구소)의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의 생산현황 및 과제', 이형규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배초향의 생리활성 물질과 항동맥경화 효과', 박정일 교수(서울대학교)의 '새로운 가공인삼-선삼의 개발과 제품화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엑스포 행사장 '꽃과 약초의 천국'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억원을 들여 엑스포 행사장 내 3만3천㎡에 꽃동산(1만9천800㎡)과 잡곡.약초 자연학습장(1만3천200㎡)을 조성키로 했다.

꽃동산에는 야생화인 층꽃과 국화, 매리골드,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엑스포 개최기간(9월 25일-10월24일)에 맞춰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는 100만 그루의 꽃이 파종되고 잡

곡.약초 자연학습장에는 메밀꽃밭(1만1천550㎡)과 약초 전시포(1천650㎡)가 조성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퇴비 뿌리기 등 정지 작업을 마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꽃동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꽃 구경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의 입이 딱 벌어지도록 멋지게 꾸미겠다"고 의욕을 보였다.